

드라마와 뮤비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성, 다 거짓말이에요

상업적 영상물이 보여주는 성은 대체로 환상이고 거짓인 경우가 많다. 문학작품도 다 거짓말인데 드라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, 예술의 허구와 드라마의 허구는 그 근본 목적이 다르다. 피카소가 말했듯이, 예술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짓말인 반면, 상업적 영상물은 수익 창출을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.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하여 시청자를 끌어모으고, 그 허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게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. 영상물이 만들어내는 거짓을 식별하게 하려면, 전문적이며 섬세한 교육이 필요하다.

이 수업을 듣기 전에도 나는 나름대로 'TV는 바보상자다.'라고 생각하고 TV 시청할 때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이 바라보려고 노력했다. 하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대중매체가 심어주는 섹스코드를 내 무의식에 그대로 심고 있었다. 교수님은 대중매체가 '첫 경험은 아름답고 낭만적이다.'라는 잘못된 의식을 심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,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 대중문화의 심층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였다. 그렇지만, 사실 나는 지금까지 첫 경험에 관한 진실을 알면서도 내 판타지 깨기를 거부해왔었다.

"너 첫 경험 해봤어?"라는 나의 질문에 친구는 수줍은 듯이 "응"이라고 대답했다. "어땠어?"라는 나의 질문과 함께 나는 '첫 경험이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좋다.'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다. 하지만 내 친구의 첫 마디는 "너 첫 경험 되게 좋을 것 같지?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."였다. 내 친구는 첫 경험이 되게 아프고 찝찝하고 전혀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나에게 그러한 환상이 있으면 환상을 깨버리라고 충고했었다.

그때 나는 첫 경험이 아프고 찝찝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.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외이기도 하고 '정말 찝찝하지만 할까?'라는 의구심이 들었다. 그래서 나는 다시 첫 경험에 대한 환상을 품었다. 심지어 나는 첫 경험을 빨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. 섹스를 쾌락으

로 한번 즐기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. 나도 아름다운 행위를 빨리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말이다. 하지만 다행히 나는 아직 성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, 만약 이러한 환상에 이끌려서 첫 경험을 했더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. 첫 경험에 대한 환상을 깨고 싶지 않은 나의 갈망 때문에 대중매체의 잘못된 메시지를 수용하려 한 나는 정말 내 욕망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.

이렇게 나는 첫 경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났다. 하지만 첫 경험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많다. 중학생 아이가 첫 경험이 너무 궁금해 아는 오빠에게 부탁해 지하 주차장에 버려진 소파에서 첫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1학년 심리학 시간에 들은 적이 있다. 분명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. 이뿐만이 아니다. 내 친구도 성 경험이 궁금하다며 "정말 기분이 좋을까?"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닌다.

이외에도 드라마는 남자에 대한 환상을 여성들에게 심어준다. 나는 드라마 속 남자들이 여성을 벽에 밀어붙이고 팔로 못 나가게 막으며 거칠게 대하는 것을 멋있게 생각했었다. 나도 그러한 여성이 되고 싶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선배가 나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핸드폰 번호를 요구했었다. 정말 내가 원하던 순간이 일어났지만, 나는 그때 드라마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. 벽에 몰아붙이고 아무 데도 못 가게 막으며 얼굴을 들이미는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. 내 환상 속의 그 느낌이 아니었다. 낭만적이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. 하지만 나는 드라마 '파리의 연인', '시크릿 가든'을 보면서 환상적인 남성을 꿈꾸고 있었다. 현실에서 보면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.

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면 그들은 가던 길을 되돌려 생명의 길로 들어선다. 이것이 진정한 회개, 메타노이아다. 미디어 시대에는 상업적 영상물이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알려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.

爲之 이광호 베네딕토(생명문화연구가) / 블로그 : 사랑과 생명의 인문학

